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1월 27일 (넷째 주일)

성경본문 : 행25장 13절-22절

설교제목 : “그 일에 관한 문제로”

1555년 2월 4일은 영국에서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순교자가 화형을 당한 날입니다. 그 순교자의 이름은 존 로저스입니다. 존 로저스 외에 매리 여왕 당시 영국 전역에서 순교당한 기독교인들이 무려 285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째는 **순교자들은 무엇 때문에 순교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가이사 앞에서 재판 받기를 상소하였고,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해서 공소장을 써서 함께 보내야 하는데, 바울의 죄목을 마땅히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립바 2세와 그의 아내 버니게가 베스도의 부임 인사차 방문하였습니다.(13절) 총독 베스도는 비교적 유대의 형편을 잘 알고 있던 아그립바 왕에게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14-16절) 베스도는 아그립바에게 자신이 예루살렘 방문을 했을 때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한 것만 아니라, 정죄하기를 청했다고 밝힙니다. 아직 법정 심리도 하지 않은 바울에게 유죄 선고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법에 의하면 피고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자기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스도는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들은 총독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에게 내려와서 바울을 소요죄와 성전모독죄로 고소하게 됩니다.(17-21절) 그러나, 바울에게서 어떠한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베스도는 이들의 고소가 종교적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바울에게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불만을 의식하여 바울을 석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가 베스도와 아그립바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베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더불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부당한 고소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베스도의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절 “오직 자기들이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의 부당한 고난의 이유는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서 우리가 던졌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있습니다. 존 로저스를 비롯해서, 왜 수많은 프로테스탄트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다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은 2년 동안 무고한 고소와 억울한 2년의 옥살이를 당해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았다면 고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순교와 고난받음은 단지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말해서 죽은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복음 선포가 울려 퍼질 때만 일어납니다. 내 믿음에 관하여 침묵한다면 핍박의 위험은 없습니다.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비로소 핍박을 받습니다. 따라서, **순교자들이 무엇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를 당하였습니까?** 가정에서 복음을 나눴고,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쳤고, 가는 곳마다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드러내며, 복음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에 순교당한 순교자들처럼, 오늘날에도, 북한에서, 파키스탄에서 소말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의 믿음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의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성공하거나, 큰 부를 쌓거나, 인기를 얻으면,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삽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재물을 쌓거나, 권력을 손에 넣거나,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떠한 고난과 순교도 각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재물과 권력과 인정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헛된 욕망의 노예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고후4:4) 결국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은 헛되게 살다가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그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고후4:6)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고후4:4에 기록된 혼미한 마음에 비추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입니다.(고후4:5)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마저도 물질적 평안을 최우선시하는 일에 타협하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위한 순교와 고난의 신앙은 현대 기독교에서는 소외받는 주제입니다. 순교와 고난의 신앙은 우리 자신의 신앙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자신의 번영과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존하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혹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길 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접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없다하더라도, 순교적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음 선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헛된 세속적 욕망을 거부하고,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순교적 삶인 것입니다.

#### ※.말씀 살펴보기

- 1) 본문의 아그립바는 어떤 인물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바울이 유대인으로부터 부당한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봅시다. 이것을 통해 느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순교적 삶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